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여성채널 '스토리온' 주부채널로 바꾼다

여성채널 스토리온은 "그동안의 여성 버라이어티채널에서 주부채널로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스토리온은 "좀 더 명확한 타깃과 채널 브랜드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고자 채널 성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주부층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미디어'로 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토리온은 '결혼한 여자들의 세상'이란 개념 아래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면서 11월 중순 콘텐츠의 새 라인업을 갖추고, 연말까지 총체적인 변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대 웃어요

SBS 주말극 오늘 첫 방영

한지붕 두가족 요절복통 대소동

〈최불암〉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 돈 걱정 없이 펑펑 써대며 살던 이 기업 회장 집 로열패밀리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궁지에 몰린 이들이 쳐들어간 곳은 자기네 집 차를 몰던 전직 운전기사네. 졸지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철없는 로열패밀리들이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스타일' 후속으로 26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주말드라마 '그대 웃어요'(극본 문희정, 연출 이태곤)의 내용이다.

22일 목동 SBS에서 열린 '그대 웃어요'의 제작발표회에서 남자 주인공 현수 역을 맡은 정경호는 "한 집에 두 가족이 살면서 벌어지는 대소동극"이라고 말했다.

"현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수룩하게 굴지만, 웃음이 많고 밝은 캐릭터인데 주변에서 실제의 저와 비슷하다고들 말해요. 저도 대본을 보면서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특별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운전기사 집 손자로, 자동차 디자인 연구원인 현수는 로열패밀리의 큰딸 정경(최정윤), 작은딸 정인(이민정)과 차례로 얽히게 된다.

그는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 촬영장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서로 웃느라 NG도 많이 내는데 보시는 분들도 무척 유쾌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경 역을 맡은 최정윤은 "정경은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혼자 철이 든 인물이다. 다른 가족들이 왜 그리 철없이 사나 안타깝게 바라본다"며 웃었다.

그는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딱 적합한 드라마"라며 "특히 기분이 우울한 분들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나 역시 너무 많이 웃어 회춘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너무 웃어 회춘하는 느낌 경제난 대처법 보여드리죠"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정인 역의 이민정은 "첫 주인공이라 너무 긴장되면서도 즐겁다"며 "정인이의 캐릭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면서 안하무인으로 커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대책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진하며 맹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엉뚱해요. 연기자로서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천호진〉

SBS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천데렐라'로 인기를 끈 이천희는 이 드라마에서 로열패밀리의 장남 성준 역을 맡았다. 정 많고 빈 구석도 많은 프로골퍼 지망생이다.

"성준은 좀 엉뚱하고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철딱서니 없게 보이지만 점점 철들며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제작진은 "돈을 펑펑 써대던 가족들이 구두쇠 집안에얹혀살게되면서벌어지는이야기"라며"경제난국에 대처하는 드라마'라고보면 좋겠다. 절대 융화될 수 없을 것 같던 두 가족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마침내 한 가족으로 뭉치게된다는이야기"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정경호·이민정·최정윤·이천희.

솔로로 나선 가수 라이언

"아날로그 감성 노래 계보 이어 가겠다"

그룹 파란 리더인 1983년생 라이언(본명 주종혁)은 나이답지 않게 스스로를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티비 원더와 김동률을 좋아하고, 직설적이고 당돌한 요즘 가사보다 수줍고 은유적인 노랫말에 매력을 느낀다. 친한 동료 가수도 또래가 아니라 BMK, 김범수다.

그룹에서 솔로로 나선 라이언의 싱글음반 '라이언 런스 투 러브'에는 그의 이런 음악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엽과 에코브릿지가 만든 타이틀곡 '자랑해'는 R&B 곡으로 정엽 특유의 멜로디 라인이 살아있다. 그러나 이같은 음악 방향을 잡기까지 마음 고생이 무척 심했던 듯 보였다.

최근 인터뷰를 가진 그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로부터 곡을 받고 싶어 직접 전화걸고 찾아다녔다. 살고싶었으니까…"라고 말했다.

덕택에 인연을 맺은 사람은 바로 브라운아이드 소울 출신으로 R&B 보컬로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엽이다.

"정엽이 형과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처음 미팅을 가졌죠. 본심을 얘기했어요. 형에게 좋은 곡을 받고 싶다고. 또 좋은 음악적 관계로 형의 후배가 되고 싶다고. 형이 흔쾌히 받아줬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노래하는 선배들의 계보를 잇고 싶거든요."

정엽이 보컬 디렉팅을 맡아선지 정엽의 창법이 노래에 묻어난다. 굵고 거친 저음이 매력이던 라이언은 그룹 시절과 다르게 노래의 옥타브도 올리고 노랫말도 꾹꾹 눌러 불렀다.

라이언은 사실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연출전공으로 방송사 PD,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선배로부터 가수 제의를 받았고, 지금의 소속사 사장님을 소개받았다. 2005년 파란으로 데뷔해 가수가 하기 싫었던 적도 있다. 보컬그룹으로 데뷔했는데, 소속사에서 동방신기 같은 댄스그룹으로 색깔을 변화시켰을 때다.

"그동안 저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잘났다고 뛰어봤자 소용없더군요. 인생을 혼자 꾸려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수로 성공하려 해도 좋은 노래, 좋은 보컬, 좋은 매니지먼트 3박자가 맞아야 하니까요."

그는 이번 음반 활동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우고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흥행에 대한 꿈을 좇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사랑을 준 팬들에게 들려주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한다. 또 '자랑해'가 프러포즈 곡인 만큼, 연애도 한다면 노래에 감정을 더 잘 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웃는다. /연합뉴스